

2019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4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독서 지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쓰고, ㉡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2점]

독서는 독자 개인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의미 구성의 주체는 개별 독자로 전제되는데, 이는 독서가 사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협동 학습의 원리를 반영하여 독자들이 글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독서 지도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 ㉠ ) 등이 있는데, 이 독서 지도 방법들은 독자들 간 의미 경쟁을 통해 내용을 명료하게 파악하게 하고, 합리적인 의미로 내면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새로운 생각을 얻거나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하여 개별 독자의 독서는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어 소통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때 글의 의미는 ( ㉡ ) 차원에서 재구성되며 독자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소통된다. 이로써 독자는 개인 차원의 독서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로서의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2. 다음 중세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자 료〉

- 길혜 더윗 病 ㅎ야 누른 梅花入 時節入 비로 저지고져 스랑 ㅎ노니
- 願 ㅎ돈 부터 滅 ㅎ신 後에 이 세계에 이 經典을 ㅍ고져 ㅎ노 이다
- 厄이 (1) 스러디과더 (2) ㅎ노니
- 文殊는 願 ㅎ샤디 世尊이 神通力으로 妙音을 (1) 나토시과더 (2) ㅎ야시닐

‘-고져’와 ‘-과더’는 모두 15세기 국어에서 ( ㉠ )의 의미를 가지는 어미로 사용되었지만 용법상 차이를 보였다. ‘-과더’가 사용된 각 문장에서는 (1)과 (2)의 ( ㉡ )이/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특징은 ‘-고져’가 사용된 문장들과 용법상의 차이를 드러낸다.

3. (가)는 학생이 쓴 기사문에서 쓰기 지식을 분석한 자료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 글을 분석한 후 교사의 생각을 적은 글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제출 과제	저작권, 알고 계십니까?	제출자	윤○○
쓰기 지식	분석	판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의 조건과 종류, 저작권의 특징,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함.</li> <li>• 독서 경험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 전문가 의견, 시민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줌.</li> </ul>	저작권에 대한 필자의 ( ㉠ )이/가 풍부함.	
장르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에 대한 기획 보도 기사문으로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제와 전문을 넣지 않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함.</li> <li>•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li> </ul>	기사문에 대한 필자의 장르 지식이 부족함.	

(나)

윤○○의 글을 분석하면서 의외로 장르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르 지식은 특정 유형의 글과 관련해 담화 공동체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온 언어적, 구조적 특징을 아는 지식으로, 담화 공동체의 ( ㉡ )을/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쓰고 담화 공동체 안에서 소통을 하면서 ( ㉡ )을/를 익히게 되는데, 윤○○은 담화 공동체에서 형성된 기사문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나 규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담화 공동체의 ( ㉡ )이/가 지닌 규범성은 변화할 수도 있지만, 글을 쓰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쓰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장르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고려해 글을 쓰도록 지도해야겠다.

4. <보기>의 맥락에서 (가)와 (나)를 읽은 후 ㉠과 의미가 상응하는 구절을 (나)에서 찾아 쓰고,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성(聖)이 장성하자, 중산 땅의 유영(劉伶), 심양 땅의 도잠(陶潛)과 더불어 벗이 되었다.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도 이 친구를 보지 못하면 속되고 제제한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든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며칠 동안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져 돌아오곤 하였다.

고을에서 조구연(槽丘掾)으로 불렸으나 미처 나아가지 못하였더니 또 불려서 청주종사(靑州從事)\*로 삼았다. 공경(公卿)들이 번갈아 친거하니 임금(公車)에 명령을 내려 모셔 오라 하였다.

이윽고 불러 보았는데 임금이 그윽이 눈여겨보고는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주천(酒泉)의 국생(麴生)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온 지 오래도다!”

[중략 줄거리] 왕의 총애를 받으며 벼슬살이하던 국성(麴聖)은 아들들의 횡포로 탄핵되어 서인(庶人)이 되었다.

성(聖)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齊) 고을과 격(隔) 고을\*의 사이에 도적이 때로 일어났다. 임금이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해낼 만한 적합한 인물이 쉽지 않자, 다시금 성(聖)을 기용하여 원수(元帥)로 삼았다.

성은 군사를 엄하게 통솔하고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愁城)에 물을 대어 단 한 판의 싸움으로 함락하고 장락판(長樂阪)을 세운 다음 돌아왔다.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후(湘東侯)에 봉하였다.

- 이규보, 「국선생전」 -

\* 청주종사: 좋은 술을 뜻함.

\* 제 고을과 격 고을: 배꼽과 가슴을 뜻함.

(나)

백운거사(白雲居士)는 선생의 자호(自號)이다. 이름을 숨기고 호를 드러낸 것이다. 자호를 지은 취지에 대하여는 선생이 쓴 「백운어록(白雲語錄)」에 자세히 기재되었다. 집에는 자주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를 잊지 못하였으나, 거사는 스스로 유쾌히 지냈다. 성격이 소탈하여 단속할 줄을 모르며, 우주를 작게 여기고 천지를 좁게 여겼다.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혼미하였다.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반갑게 나가서는 잔뜩 취해서 돌아왔으니, 아마도 옛적 도연명(陶淵明)의 무리이리라.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사실의 기록이다.

- 이규보, 「백운거사전」 -

<보 기>

고려 말에는 (㉡)와/과 (㉢)이/가 성행했는데, 모두 열전(列傳)의 형식으로부터 왔다. 전자는 사물이나 심성을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구성하여 의인화의 방식으로 쓴 전기(傳記) 형식의 글이며, 후자는 작자 자신을 가상 인물에 빗대어 말하는 형식의 글을 말한다. 이규보는 자신의 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두 종류의 작품을 지은 바 있는데, (가)는 전자에 해당하고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

5. 다음 작품을 제재로 삼아 비유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보기>의 도해를 활용하여 원관념인 ‘노랑나비’가 ‘한숨’짓는 존재로 표현되는 과정을 보이려 할 때,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작품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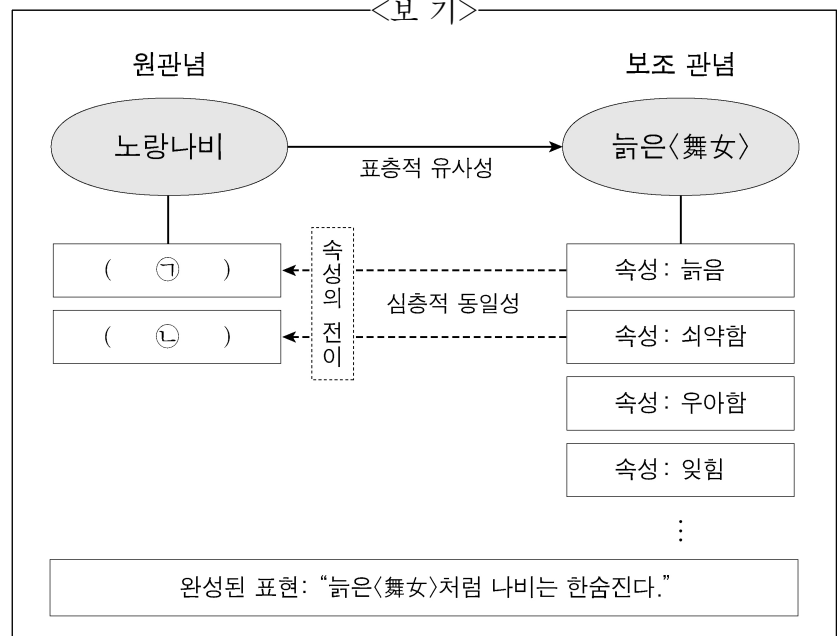
비바람 험살군계 거쳐간 추녀밑—  
날개 찢어진 늙은 노랑나비가  
맨드래미 대가리를물고 가슴을 앓는다.

찢긴 나래에 땀이 풀려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수없는 슬픔에  
물고있는 맨드래미조차 소태맛이다.

자랑스러울손 화려한 춤재주도  
한옛날의 꿈쪼각처럼 흐리어,  
늙은<舞女>처럼 나비는 한숨진다.

- 윤곤강, 「나비」 -

<보 기>



6. (가)는 향가의 교수·학습 자료이고, (나)는 이를 학습하는 학생의 사고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작품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경덕왕이 말했다.  
 “내 들으니 스님이 기과랑을 찬미한 사뇌가가 그 뜻이 매우  
 높다 하던데 과연 그러하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짐을 위해 백성을 다스려 편안히 할 노래[안민가  
 (安民歌)]를 지어 주오.”  
 승려는 즉시 칙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이 그를  
 아름답이 여겨 왕사(王師)로 봉하니 충담사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안민가』는 이렇다.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미요  
 백성은 어린아이로다 하실진대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살손 물생(物生)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리 할진대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이다  
 아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니이다

- 일연, 『삼국유사』 -

(나) 『안민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해 가는 사고 과정

노래의 주제에 대해 의문 제기하기	이 노래의 3분절에 중심을 두고, 그 주제를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며 백성은 백성답지 못한 신라 사회의 난맥상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과연 임금, 신하, 백성을 모두 비판하고 있는 노래일까?
노래의 표현과 제목에 단서로 의문 해결하기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와 함께 ( ㉠ ) (이)라고 표현하여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간주한 점과 제목에 담긴 뜻으로 보아, 일단 백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노래의 의도에 대해 또 다른 의문 제기하기	그렇다면 과연 임금과 신하를 같은 무게로 질책한 걸까?
노래의 표현을 단서로 의문 해결하기	( ㉡ ) (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신하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보아 신하들에 대한 질책의 의미에 더 큰 무게를 둔 것 같아.
배경 설화를 함께 고려하여 노래의 심층적인 의도 이해하기	노래를 들은 왕이 충담사를 아름답게 여겼 다는 배경 설화와 2분절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노래는 신라 사회의 어지러운 질서에 대한 책임을 결국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보살 피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노래일 것 같아.

7. (가)에 (나)의 작품 창작의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할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다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나)  
 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가 없다. 시인의 탐구의  
 대상은 바로 그 시대 현실 속에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느 한 세계관으로 볼 때는 기지의 사실로서 매우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적 현실** 속에서 그 모순을  
 발견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상성에 신선미를 주고  
 경이감을 주고 호기심을 주는 원동력은 거의 전적으로 그 시인의  
 비판 정신에서 비롯된다. 시인은 경이를 일으키기 위해 어떤  
 특이하고 기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시인에게  
 새로움이란 일상을 비일상으로 인식하는 능력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시인에게 **새로운 대상의 발견**이란 그러므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을 뜻하는 것이다.

- 정희성, 『현실과 시인 의식』 -

<보 기>

○ 작가(시인)의 맥락에서 작품 이해하기

(가)에 제시된 표현	(나)의 맥락	(가)에서의 의미
㉠	일상적 현실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농민의 삶
셋강바다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새로운 대상의 발견	㉡

8. 다음은 동의문과 관련된 수업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교사: 문장의 형태가 다르지만 의미가 동일한 문장의 쌍을 동의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1)과 (2)의 예문을 살펴봅시다.

- (1) 가. 영희는 어제 학교에 결석했다.  
 나. 영희는 어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2) 가.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나. 영희는 철수에게 책을 받았다.

학생: (1)과 (2) 모두 반의어를 사용해서 동의문을 만들었네요. (1)은 ‘결석하다’와 ‘출석하다’를 사용해서, (2)는 ‘주다’와 ‘받다’를 사용해서 동의문을 만들었군요. 그런데 (1)은 부정문이고 (2)는 부정문이 아니네요. 모두 반의어를 사용해서 동의문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교사: 그것은 반의어의 유형이 달라서 그렇지요. ‘결석하다’와 ‘출석하다’는 ( ㉠ ) 반의어로, ‘출석하다’를 부정하면 ‘결석하다’와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1)과 (1)은 동의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다’와 ‘받다’는 역의 관계 반의어라서 (2)에서와 같이 ( ㉡ )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야 (2)의 동의문이 됩니다.

9. 다음은 형용사 구문의 특성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이다. 탐구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1) 가. 나는 철수가 좋다.  
 나. 나는 영희가 그립다.  
 (2) 가. 순희는 눈이 크다.  
 나. 동수는 마음씨가 착하다.

<작성 방법>

- (1)과 (2)의 서술어인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을 각각 서술할 것.
- (1)과 (2)의 형용사와 ‘-어하다’의 결합 가능성을 서술할 것.
- (2)의 형용사에 선행하는 문장 성분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서술할 것.

10. (가), (나)의 시적 소통 구조의 특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빙 내여 아즐가 빙 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네 가지 아즐가 네 가지 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널 비에 아즐가 널 비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빙 타 들면 아즐가 빙 타 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 「서경별곡」 -

(나)  
 어와 벗님네야 이 내 말삼 들어보소  
 인생 천지간에 그 아니 느껴온가  
 평생을 다 살아도 다만지 백년이라  
 하물며 백년이 반듯기 어려우니  
 백구지과극(白駒之過隙)이요 창해지일속(滄海之一粟)이라  
 역려건곤(逆旅乾坤)에 지나가는 손이로다  
 빌어온 인생이 꿈의 몸 가지고서  
 남아(男兒)의 하울 일을 역력히 다 하여도  
 풀끝에 이슬이라 오히려 덧업거든  
 어와 내 일이야 광음을 헤여보니  
 반생이 채 못 되어 육육(六六)에 들어 업네  
 이왕 일 생각하고 즉금(卽今) 일 헤아리니 번복도 측량업다  
 ... (중략) ...

마른 섭홀 등에 지고 열화(烈火)에 들미로다  
 재가 된들 뉘 탓이리 살 가망 업다마는  
 일명(一命)을 꾸이오셔 해도(海島)에 보내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지록 망극하다  
 강두(江頭)에 배를 대어 부모 친척 이별할 제  
 슬픈 눈물 한숨 소리 막막수운(漠漠愁雲) 머무는 듯  
 손잡고 이른 말삼 조히 가라 당부하니  
 가삼이 막히거든 대답이 나을소냐  
 ... (하략) ...

- 안도환, 「만언사」 -

<작성 방법>

- (가), (나)의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를 쓰고, 그 정서를 표현하는 데 현상적 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각각 서술할 것. (단, 각각의 현상적 청자를 명시할 것.)

11. 다음은 심포지엄의 일부이다. 심포지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 방법과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사회자: 지금부터 '인간 태도 변화의 원인 탐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 정○○ 교수님께서 '행동 학습에 의한 태도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 교수: (발표한다.)

사회자: 지금까지 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인간의 태도 변화는 행동 학습에 의한 변화로 연합에 의한 변화, 강화에 의한 변화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태도연구소 강○○ 박사님께서 '설득에 의한 태도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 박사: (발표한다.)

사회자: (강○○ 박사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세 번째 발표자 황○○ 교수를 소개한다.)

...(중략)...

사회자: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청중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사회자가 지명하면 1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발표자께서는 3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중 1이 손을 든다. 사회자가 지명한다.)

청중 1: 황○○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태도 변화와 관련한 인지 부조화 이론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 인지 부조화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그 사례들이 오히려 교수님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황○○ 교수: ㉠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인지 부조화 이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잘못 판단하면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태도가 변화하는 사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한다.)

...(중략)...

사회자: 이제 심포지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 태도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강○○ 박사님께서 설득에 의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황○○ 교수님께서 인지 부조화 이론과 관련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작성 방법>

- ㉠을 고려할 때 ㉠에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듣기 방법을 3가지 서술할 것.
- [A]에서 사회자의 역할로서 미진한 점을 1가지 서술할 것.

12. 다음은 국어 받침의 발음 변화를 학습하기 위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의 질문에 따른 교사의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사: 15세기에는 받침 ㄷ과 ㅅ의 발음이 지금과 같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견해와, 지금과 달리 받침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15세기에 받침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견해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학생: 그러면 15세기 이후에 받침 ㄷ과 ㅅ의 발음이 받침 ㄷ의 발음으로 같아지는 변화가 일어났나요?

교사: 네, 맞아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살펴보까요?

<자료>

(가)	15세기	잇느니[有], 낫나치[箇箇], 뭏뭏흐다[滑]
(나)	15세기 이후	인느니[有], 난나치[箇箇], 뽀뽀흐다[滑]

<작성 방법>

- (가), (나)의 구체적인 음운 현상의 발생 여부를 비교하여 서술할 것.
- (가), (나)의 음운 현상 발생 여부의 이유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13. <보기>는 (가)와 (나)를 문학사적 맥락에서 설명하기 위해 강 교사가 작성한 수업 자료이다. <보기>를 참조하여 수업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앞의 줄거리]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대학을 졸업한 P는 신문사의 K 사장에게 취직을 부탁하러 갔다가 거절당한다. K 사장은 채용을 거절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P에게 농촌 운동을 해 보라고 권유한다. 뚜렷한 목표나 실행 의지도 없이 겉으로만 농촌 운동 운운하며 선각자연하는 K 사장에게 불쾌감을 느끼며 P는 거리로 나선다.

P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잔돈과 지폐를 섞어 3원 남은 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왼편 손으로는 손가락을 뽑아가며 3원을 곱쟁이 쳐 보았다.

6원 12원 24원 48원 96원 192원. 8원 모자라는 2백 원…… 4백 원 8백 원 1천 6백 원 3천 2백 원 6천 4백 원 1만 2천 8백 원. 8백 원은 떼어 버리고 2만 4천 원 4만 8천 원 9만 6천 원 19만 2천 원 38만 4천 원 76만 8천 원 153만 6천 원……

3원을 18번만 곱집으면 153만 원이 된다. 153만 원 그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매 어깨가 으쓱해졌다.

3원의 열여덟 곱쟁이가 150만 원이니 꽤 쉬운 일이다…… 그놈만 있으면 백만 원을 들여서 50전짜리 16페이지 신문을 하나 했으면 위선 K 사장의 엉엉 우는 꼴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대로 15만 원만 있어도 1만 5천 원 아니 1천 5백 원만 있어도 아니 150원만 있어도 15원만 있어도 위선 방세와 전등 값을 주고 한 달은 살아가겠다.

P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한 달만 살고 나면 그담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몇백 원은 있어야지, 아니 몇천 원은, 아니 몇만 원은……

P는 늘 하는 버릇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공상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최근 이러한 공상을 하면서부터 취직을 시들하게 여겼다.

취직이 된댔자 사오십 원이나 오륙십 원의 월급이다. 그것을 가지고 빠듯빠듯 살아간들 무슨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을 턱도 없는 것이다.

가령 근실히 해서 월과저금(月掛貯金) 같은 것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여편네도 생기고 사장이나 중역들의 눈에 들어 지위도 부장쯤으로는 올라가고, 그리하여 생활의 근거도 안정이 되고 하면 지금 같은 곤란은 당하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P에게는 아직도 젊은 때의 야심이 있어 그러한 고식된 안정이나 명색 없는 생활은 도리어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좀 더 남의 눈에 띄며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

물론 그는 지금이라도 누가 한 달에 30원만 줄 테니 와서 일해 달라면 마치 주린 개가 고기를 보고 덤비듯이 달려놓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와 판판으로 배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

(나)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느니보다도 성가졌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고도 싶었다.

… (중략) …

11시쯤 해서 하는 아내의 첫 번 세수는 좀 간단하다. 그러나 저녁 7시쯤 해서 하는 두 번째 세수는 손이 많이 간다. 아내는 낮에보다도 밤에 더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낮에도 외출하고 밤에도 외출하였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내객이 많다.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50전짜리 은화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써야 좋을지 몰라서 늘 머리맡에 던져두고 두고 한 것이 어느 곁에 모여서 꽤 많아졌다. 어느 날 이것을 본 아내는 금고처럼 생긴 병어리를 사다 준다. 나는 한 푼씩 한 푼씩 고 속에 넣고 열쇠는 아내가 가져갔다. 그 후에도 나는 더러 은화를 그 병어리에 넣은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얼마 후 아내의 머리 쪽에 보지 못하던 누갈잡이 하나 여드름처럼 돋았던 것은 바로 그 금고형 병어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증거일까. 그러나 나는 드디어 머리맡에 놓였던 그 병어리에 손을 대지 않고 말았다. 내 게으름은 그런 것에 내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싫었다.

- 이상, 「날개」 -

—<보 기>—

- 1930년대 소설사의 특징
  - 계몽주의 문학, 프로 문학과 같은 주류적 흐름이 약화되고 소설의 경향이 다양화됨.
- 주요 경향
  -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하려 한 장편소설
  - 가족사 소설, 역사 소설과 같이 양식적 탐구를 보여 주는 소설
  - 한국 농촌의 풍속도를 그린 소설
  - ㉠ 식민지 현실을 냉소적,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소설
  - ㉡ 실험적인 기법으로 근대 문명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는 소설
  - 도시 소시민들의 세태를 관찰하고 묘사한 소설
  - 한국적인 정서와 토속적인 세계를 형상화한 소설

—<작성 방법>—

- (가), (나)에서 인물을 성격화하는 데 ‘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각각 서술할 것.
- (가)는 ㉠, (나)는 ㉡의 경향에 속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서술할 것.

14. (가)는 교과 간 통합 수업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들이 쓴 실험 보고서 초안의 일부이다. 실험 보고서 쓰기의 지도 방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계획

- 학습 목표
  -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쓸 수 있다. (국어)
  - 액체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과학)
- 쓰기 과제: 액체의 열팽창에 관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쓴다.
- 교수·학습 활동 및 유의점

차시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하는 글의 소통 맥락 알기</li> <li>- 보고하는 글의 구성 요소와 표현 알기</li> </ul> </li> <li>• 보고서 쓰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 과제 분석하고 실험 계획하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필, 논설문 등과 비교하여 보고서의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 준비하기</li> <li>- 모둠별 실험하기</li> <li>- 실험 과정과 결과 정리하기</li> </ul> </li> <li>• 결과 분석하고 토의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게 한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쓰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는 실험 보고서 쓰기</li> </ul> </li> <li>• 실험 보고서 발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 보고서를 쓸 때</li> <li>㉠ <u>학습 작문(학습을 위한 글쓰기)</u>이 이루어지게 한다.</li> </ul>

(나) 학생들이 쓴 실험 보고서 초안

**온도 변화에 따른 액체의 팽창**

모둠 이름: 힘내라 모둠  
 모둠원: 유○○, 권○○, 정○○

**1. 실험 동기 및 목적**

며칠 전 동생이 음료수를 마시다가 음료수가 가득 차 있지 않다고 속상해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본 언니는 온도가 올라가 액체가 팽창하면 유리병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때 궁금한 점이 생겼다. 모든 액체는 동일하게 팽창할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액체가 얼마나 많이 팽창할까? 우리 모둠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실험을 해 보기로 했다.

**2. 실험 계획**

- (1) 실험 시간 및 장소: 2018년 ○월 ○일, 과학 실험실
- (2) 실험 대상: 공기름, 물, 에탄올
- (3) 실험 준비물: 공기름, 물, 에탄올 각 300mL, 유리병 3개, 유리관 3개, 고무 찰흙 3개, 자 1개, 수조 1개, 송곳 1개, 뜨거운 물 3L, 병뚜껑 3개

(4) 실험 과정

- ① 병뚜껑의 중앙에 유리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뚫는다.
- ② 구멍에 유리관을 끼우고 고무 찰흙으로 액체가 새지 않도록 막는다.
- ③ 빈 유리병 3개에 각각 공기름, 물, 에탄올을 가득 채우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뚜껑을 닫는다.
- ④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유리병 3개를 넣는다.
- ⑤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높이를 잰다. [사진]

**3. 실험 결과 및 토의**

㉡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에탄올과 공기름이 물보다 높은 편이었다. 실험 결과를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보니 액체마다 분자의 크기나 결합 상태가 달라서 공기름, 물,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달랐던 것이다. 우리 모둠에서는 액체의 열팽창의 예로 체온을 잴 때 사용하는 수은 온도계를 찾을 수 있었다. 우유가 가득 찬 병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우유가 넘치는 것도 액체의 열팽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결론**

액체에 따라 열팽창의 정도가 다르다.  
 ... (하략) ...

**<작성 방법>**

- 이 수업에서 ㉠이 지니는 의미를 국어 교과와 과학 교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할 것.
- 실험 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 같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쓰고 수정 지도 방안을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